

서울시,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불법 무단사용 등 4단계 전수조사

토지 5만8044필지 등 전체 조사 재산 변동사항 정비·대장 현행화 무단 점유 적발시 변상금 처분

서울시가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에 의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 5만8044필지(106.20km²·재산가액 151조4327억1946만원), 건물 6만3109호(12.3km²·재산가액 10조7363억787만), 기타 재산 3798만2800건 등 시유재산 전체다. 기타 재산에는 입목축 5만4203수, 공작물 6만765건, 기계기구 274건, 선박 50척, 항공기 4대, 무체재산 1097건, 유가증권 3786만5116주 등이 포함된다.

금번 조사에서 시는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사용·대부료 납부 내역 및 체납 여부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 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설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4단계로 구분해 전수조사한다.

1단계에서 시는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대상을 결정한다.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변동됐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현황에 맞게 수정한 뒤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한다. 재산관리관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기간·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신규 취득 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하고, 전산망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올린다.

2단계로 시는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시는 시유재산이 불법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 사용허가를 내렸거나 대부분 경우 시유재산을 전대(재임대)했는지,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3단계에서 시는 무단점유, 유류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을 정밀 보완 조사한다. 토지나 건물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에 들어간다.

4단계로 시는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작업을 한다. 시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다.

시유재산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시는 내달 8일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대비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세요”

서울시 150억 투입... 1만명 지급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서울시내 일시휴직자는 평균 9만명으로, 전국 휴직자의 24.7%에 이른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 지원금 제도로 3만



6984명에게 345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한달에 일주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다.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는 휴일과 주말에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5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에 입금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수도계량 ‘스마트 원격검침’ 추진

2030년까지 66만개 계량기 전환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시내 수도계량기 66만개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와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한 뒤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검침 값을 전송

하는 무인자동검침 방식이다. 1924년 서울에서 생활용수에 수도계량기가 처음 사용된 이래 약 100년 만에 검침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존 인력 중심의 방문·격월 수도검침 방식을 2030년까지 비대면·상시로 확인하는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메트로신문 창간 20주년 행사를 빛내주신 분들 (가나다순)

“창간 2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찾아와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 | | | | | |
|-----------------|-----------------|-----------------|------------------|------------------|------------------|------------------|
| 강성길 선데이토즈 과장 | 김승규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 맹용호 동국제약 팀장 | 변관열 하림 부장 | 원윤식 네이버 전무 | 이영표 CJ제일제당 상무 | 장혁 한화건설 팀장 |
| 강성두 코리아세븐 상무 | 김승택 KT&G 실장 | 문춘근 한국투자증권 상무 | 서동혁 부영주택 팀장 | 원정호 SK하이닉스 팀장 | 이영호 넥스 부실장 | 전도준 포스코건설 팀장 |
| 강신구 LG유플러스 실장 | 김영상 귀뚜라미 팀장 | 민경모 대한항공 팀장 | 서리안 한국맥도날드 팀장 | 원태홍 현대투자증권 부장 | 이용혁 메리츠화재 상무 | 전시내 하이트진로 팀장 |
| 강일호 기술보증기금 부실장 | 김영선 BC카드 팀장 | 박대수 현대해상화재 부장 | 서일호 호텔신라 그룹장 | 유정재 우리은행 부장 | 이용노 손해보험협회 팀장 | 전인수 KB국민은행 부장 |
| 강정훈 일동제약 부장 | 김영식 선데이토즈 부장 | 박대호 중앙대학교 주임 | 서창우 푸른현대생명 부실장 | 윤성하 한국엔컴퍼니 팀장 | 이용재 교보생명 팀장 | 정길근 CJ제일제당 부사장 |
| 강현구 GC녹십자 팀장 | 김우경 SK이노베이션 부사장 | 박도영 GS리테일 부장 | 선병택 한림의료재단 팀장 | 윤송상 다올투자증권 이사 | 이유철 신한은행 팀장 | 정봉규 아시아나항공 차장 |
| 고인수 현대오일뱅크 상무 | 김원삼 제주항공 팀장 | 박동규 한화생명 부장 | 성기영 동아제약 팀장 | 윤종덕 삼성전자 부사장 | 이윤석 롯데몰상 상무 | 정승환 롯데케미칼 파트장 |
| 권용석 대상그룹 상무 | 김유미 롯데홈쇼핑 매니저 | 박민재 위메이드 팀장 | 성동일 NH농협손해보험 팀장 | 윤현호 오리온 홍보실장 | 이은영 셀트리온 과장 | 정정욱 (주)LG 전무 |
| 권이상 쌍용건설 차장 | 김응준 HY 팀장 | 박상영 광동제약 사장 | 성현두 LG에너지솔루션 전무 | 이기원 신한라이프생명 부장 | 이정우 KT 상무 | 조규정 금호석유화학 상무 |
| 권희대 전자랜드 이사 | 김재호 한국증권금융 과장 | 박상훈 우아한형제들 팀장 | 소성수 크라운호텔딩스 부장 | 이경현 삼성카드 이사 | 이준 DB손해보험 부장 | 조성현 하이투자증권 부장 |
| 김강일 하나금융투자 팀장 | 김정영 한국거래소 부장 | 박세진 넷마블 상무 |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 이경환 신세계그룹 부장 | 이준구 삼성화재 파트장 | 조정우 푸른현대생명 파트장 |
| 김경환 (주)LG 상무 | 김정훈 신한은행 부장 | 박승배 유안타증권 실장 | 손원범 골든블루 본부장 | 이내정 카카오 부사장 | 이준무 SPC그룹 상무 | 주상환 BNK부산은행 부장 |
| 김광재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실장 | 박영철 공인회계사회 부장 | 송민복 대우위니아 팀장 | 이도열 소진공 실장 | 이준우 한국조선해양 부장 | 주창현 동아오츠카 차장 |
| 김기형 빙그레 상무 | 김준현 한샘 전무 | 박원철 현대건설 팀장 | 송치호 한양증권 상무 | 이동진 전국은행연합회 팀장 | 이준희 보령제약 상무 | 주철범 홈플러스 상무 |
| 김남규 한국투자증권 실장 | 김지수 교원 팀장 | 박은혜 비바리퍼블리카 팀장 | 신동광 LSNi공동제원 매니저 | 이동영 하나금융투자 상무 | 이지훈 BNK경남은행 부부장 | 주희석 메디톡스 부사장 |
| 김대식 롯데카드 팀장 | 김진영 KB금융투자 상무 | 박종국 한화그룹 전무 | 신민호 우미건설 팀장 | 이동주 LX그룹 상무 | 이택기 동화약품 상무 | 차승광 여신금융협회 팀장 |
| 김도학 현대차그룹 상무 | 김창현 엔씨소프트 실장 | 박준수 한국조선해양 상무 | 신용선 경동나비엔 팀장 | 이동훈 HDC현대산업개발 팀장 | 이행수 NH농협은행 팀장 | 최민호 롯데지주 상무 |
| 김동우 케이뱅크 팀장 | 김태완 교보증권 팀장 | 박중석 삼양식품 팀장 | 신우현 KB국민카드 부장 | 이명행 SK수펙스추구협 팀장 | 이혁 롯데제과 팀장 | 최혁규 한화손해보험 부장 |
| 김만석 대우위니아 이사 | 김태현 삼성SDS 그룹장 | 박진영 KB금융투자 부장 | 신태림 한화갤러리아 차장 | 이민철 KT&G 부장 | 이훈노 종근당 이사 | 최혁순 IBK투자증권 팀장 |
|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 김형철 CJ주식회사 상무 | 박진우 포스코홀딩스 실장 | 안영 위메이드 차장 | 이민희 한국에탁결제원 팀장 | 임규목 금융투자협회 이사 | 최성익 SK수펙스추구협 부사장 |
| 김범석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 | 김효겸 한국인삼공사 상무 | 박진호 현대모비스 상무 | 안현철 스타벅스 팀장 | 이봉철 ABL생명 부장 | 임영섭 NH농협은행 부장 | 허영길 LS그룹 상무 |
| 김상규 토스뱅크 매니저 | 김홍식 SK브로드밴드 상무 | 박천택 현대제철 팀장 | 양문영 롯데칠성음료 팀장 | 이상열 GS그룹 부장 | 임지웅 라인게임즈 팀장 | 허신열 CJ대한통무 상무 |
| 김상진 넥스 차장 | 김홍인 현대그룹 전무 | 박철현 펄어비스 팀장 | 양승익 KB자산운용 상무 | 이성욱 GS건설 팀장 | 임진택 유진기업 팀장 | 황대현 대신증권 팀장 |
| 김상택 농협중앙회 과장 | 김희중 중진공 팀장 | 박희철 신한카드 팀장 | 엄세원 삼성증권 팀장 | 이성태 신한라이프생명 전무 | 임철순 NH투자증권 실장 | 황병욱 미래에셋생명보험 상무 |
| 김상혁 롯데하이마트 매니저 | 남윤원 OK금융그룹 부장 | 백대현 한양사이버대학교 팀장 | 엄호천 미래에셋증권 이사 | 이승배 한진 팀장 | 임희석 DL E&C 상무 | 황상민 삼성화재 상무 |
| 김선홍 동국제강 팀장 | 노승수 매일유업 팀장 | 백동욱 중소기업중앙회 팀장 | 여천한 DL E&C 팀장 | 이승열 SKT 실장 | 장세찬 SK네트웍스 팀장 | 황성영 카카오톡빌리티 이사 |
| 김성준 시몬스 상무 | 노종갑 KB증권 상무 | 백승현 동양생명 수석 | 오용진 커티스 팀장 | 이승은 IBK기업은행 부장 | 장영식 현대제철 상무 | 황성민 삼성자산운용 팀장 |
| 김성중 홈앤쇼핑 본부장 | 노지환 HMM 팀장 | 백주환 오비맥주 이사 | 오정택 하나금융투자 상무 | 이영목 쿠방 전무 | 장정욱 다올투자증권 부사장 | 황우일 이랜드월드 부장 |
| 김수영 신한금융투자 상무 | 류종석 생명보험협회 팀장 | 백창돈 11번가 상무 | 우병민 LG화학 팀장 | 이영찬 KB손해보험 부장 | 장종환 NH농협금융투자 본부장 | 황은재 카카오펍 팀장 |

▲ “미친 전쟁”...러 재벌, 푸틴 비판했다
수십조원 뺏겨
▲ 우크라이나 사태로...일본 “개헌 찬성” 여론 9년 만 최고치



▲ 젤렌스키 “마리우폴 탈출 민간인, 러 강제 이송 위험”
▲ 미국,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 인프라 자금 3.8조원 투입



▲ 세계 인구 35% 주식 ‘밀’ 공급 위기... “곡물 시장 격변”
▲ 연중 고강도 긴축 우려...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4년만 3% 돌파